

청소년을 위한 교육 설교 구조 제안

이은철*
이성아**
남선우***

논문초록

본 연구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 설교의 구조를 구성하여 제안하는 것에 있다. 이를 위해 교수-학습의 이론 가운데 교육 내용 전달에 적합한 ISD(Instruction Systematic Design) 이론과 가네(Gagne)의 9가지 수업사태를 토대로 교육 설교 구조를 구성하였다. 교육 설교 구조는 크게 설교 설계 단계와 내용 전달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설교 설계 단계는 1) 바람직한 수준 결정, 2) 대상자 분석, 3) 차이 파악, 4) 설교 목표 설정, 5) 전달 내용 분석, 6) 전달 회차 결정, 7) 내용 전달 전략 개발, 8) 설교 원고 작성이다. 다음으로 내용 전달 단계는 1) 청중의 시선 집중시키기, 2) 설교의 목표 제시하기(주제제기), 3) 사전 지식 및 배경 지식 전달하기(주제와 관련 지식 포함), 4) 설교 내용 전달하기, 5) 설교 내용 이해 수준 파악하기, 6) 이해 수준에 대한 피드백 제공, 7) 실천 내용 전달하기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점은 청소년을 위한 교육설교 구조의 제안과 함께 연속적인 설교에 적합한 구조를 제안한 것이다.

주제어 : 청소년 설교, 교육설교, 설교 구조, 설교 설계, 설교 내용 전달, 설교 전달 전략

* 제1저자,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 lec3918@kedi.re.kr

** 제2저자, 한국성서대학교 조교수, babyfish@bible.ac.kr

*** 교신저자, 열림교회 목사, calvin21@empal.com

2016년 6월 7일 접수, 6월 20일 최종수정, 7월 7일 게재확정

1. 들어가는 말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실시간으로 개인들에게 전달되어질 만큼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수준은 혁신적으로 성장하였다. 이와 함께 소통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도구들도 매우 빠르게 발전하며 보급되고 있다(고용수, 2015: 14). 그러나 매우 역설적으로 세대와 세대 간의 소통은 오히려 단절되고 있으며, 더욱이 개인과 개인 간의 소통 또한 단절되고 있다. 이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 교회 내의 소통의 결핍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결핍의 현상은 결국 교회의 위기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윤화석, 2015: 74-75). 특별히 교회내의 소통의 결핍은 청소년의 세대의 교회 이탈이라는 문제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대의 청소년들이 기성세대의 억압과 소외를 경험하며, 과도한 경쟁을 강요당하는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오성주, 2014: 116-117), 이와 같은 청소년들의 삶의 문제는 교회가 어루만지고 회복시켜서 청소년들을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신앙의 내용을 삶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 시키지 못했고, 이 때문에 성도들은 온전한 신앙을 형성하지 못하게 되었다(옥장흠, 2013: 344). 결국 교회 내의 청소년의 문제는 바른 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교회에 있어서 청소년의 교육은 단순히 바른 신앙인을 양성한다는 차원을 벗어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를 유지해 나가고 확장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신앙의 공동체는 다음 세대에게 기독교 신앙을 교육을 통해 전달할 때 유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김도일, 2013: 1; 박종석, 2002: 262).

그러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기독교 신앙의 교육을 매우 지루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예배만 겨우 드리고 교회를 도망치듯 빠져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이선영, 2014: 258). 이에 한국 교회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적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청소년 문제는 더욱 깊어질 것이며,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좌초의 위험을 맞이할 수도 있다(박종석, 2002: 292-293).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많은 기독교 교육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한 대안으로 설교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은 설교와 교육을 별개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었고,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은 예배 후 공과공부 시간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과공부의 실효성을 논의하며, 청소년 교

육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으로 설교를 제시하고 있다(김대혁, 2015: 177; 박종석, 2002: 261; 이숙경, 2013: 1; 이철승, 2010: 189; 장경진, 2013: 213). 특별히 김대혁(2015: 117)은 균형 잡힌 교회교육을 위해서 설교를 교육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 설교에 대한 장기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적인 관점에서 청소년 설교의 목적과 방향, 구성요소를 제안하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이철승, 2010: 190). 이처럼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회교육의 대안으로 설교를 제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설교의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매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인 탐색을 통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설교의 구조를 구성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교육 내용을 전달함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구조를 탐색하고, 이를 설교의 구성요소에 적용하여 교육 설교의 구조를 구성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에 대한 특성 및 이해

(1)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청소년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특별히 청소년의 신체는 성인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기 시작하는데, 체형이 고르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부분에 따라서 발달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이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과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청소년의 시기에는 자신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그리고 외형에 대한 자신의 판단은 자존감과 자신감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청소년의 심리 및 정서적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주변에서 자신의 외모에 대해 들려지는 평가를 통해서 자신의 가치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다. 이에 청소년들에게 외모에 대한 평가나 판단은

매우 신중해야 하며, 가급적 피하는 것이 긍정적이다(조은하, 2013: 153-154).

다음으로 지적인 발달 수준은 피아제의 인지 발달을 기준으로 할 때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형식적 조작기로서 추상적이고 깊은 사고가 가능한 시기이다. 이에 추상적인 언어를 통한 교육이 가능하며, 논리적인 추론이 가능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다양한 교육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며, 자신의 생각을 완벽하지는 않지만 논리적으로 진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지는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의 영적인 특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며, 신앙을 만들어 나가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신적 존재 즉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며, 경험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 수 있다(이은철, 김민정, 2010: 247). 이에 청소년들은 들려지는 것에 의한 믿음보다 보고 경험되어지는 것에서 신앙을 얻고자 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가정에서의 부모, 교회학교의 교사, 주변의 친구들에 의한 영향을 매우 많이 받는 시기이기도 하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 호기심과 궁금증, 그리고 의심이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청소년의 시기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 철저하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오성주, 2013: 261-263).

(2) 청소년에 대한 이해

청소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문화적 측면이다. 청소년은 성인들과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문화적 배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는 삶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삶의 양상이며, 사고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조은하, 2013: 158). 지금 세대의 성인들은 현실의 세계에서만 살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두 개의 세계를 살고 있다. 하나의 세계는 현실의 세계이며, 또 하나의 세계는 가상현실의 세계 즉 사이버 세계이다. 일반적으로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에 빠져 있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이러한 어른을 이해할 수 없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살고 있는 것이며, 자신의 호흡하는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꾸 삶을 살지 말라고 혼내는 것이다. 반면에 어른들은 현실에서의 삶에 충실하지 못하고 가상의 세계에 열중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 결국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청소년

과 어른의 소통은 단절되고, 서로가 더욱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사이버 세계는 현실 세계보다 더 매력 있고, 더 머물고 싶은 세계이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현실의 세계에서 나의 외모는 별로이고 못날 수도 있다. 그러나 사이버 세계에서는 멋지고 예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친구도 만들 수 있고, 심지어 다양한 물건을 구매하기도 하며, 학교의 과제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게임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이버 세계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과도한 경쟁, 소외, 소통의 단절, 낮은 자존감, 학업 스트레스가 가득하다. 결국 청소년들은 점점 사이버 세계로 빠져 들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어른들이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이철승, 2010: 191-192).

두 번째는 심리적 측면이다.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 도저히 종잡을 수 없는 행동과 불안정한 상태를 나타내는 청소년의 전형적인 행동양식을 보여주는 단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여주는 심리적 원인은 먼저 자아정체성의 혼란에서 비롯된다. 청소년은 신체적 발달을 통해서 성인으로 진입을 하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신체적 발달을 통해서 성인이 되었다고 자각한다. 그러나 그들의 역할은 여전히 부모와 어른들에게 종속된 상태이며, 인격적으로 성숙한 독립적 존재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역할 갈등에 의해서 청소년들은 어른들을 향해서 반항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가 나타난다. 이와 함께 자신의 독립을 위해 부모와 어른들의 가치관과 질서에서 자신을 분리시키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부모와 어른들의 가치와 질서를 부정하고 자신만의 가치와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서 부모와 어른들은 청소년들이 이유 없이 반항을 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반항은 자신들의 자아정체성을 찾기 위한 몸부림이며, 심리적 균형을 가져오기 위한 과정임을 이해해야 한다. 결국 청소년기의 심리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이며, 부모와 어른들을 향한 반항적 태도를 가지는 시기이다. 이와 같은 시기에 청소년들을 독립적인 개체로 인정하지 않고 억압하려고 한다면 부정적인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행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청소년들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성숙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보이며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조은하, 2013: 153-155).

마지막으로 신앙 발달적 측면에서 청소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 특별히

초기 청소년들은 신앙을 교리와 이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실제적인 삶의 모습으로 받아들인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지식의 변화보다는 삶의 직접적인 변화에서 신앙에 대한 핵심을 찾으려고 한다. 이에 초기 청소년들은 가장 이상적으로 신앙을 지도해주고, 모델이 되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신앙인이 가져야 할 생각과 태도, 삶의 모습을 들을 체계적으로 알고자 하는 욕구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중기 청소년들은 합리적인 신앙보다는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와 함께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앙도 자신과 관련된 것이어야 쉽게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와 같은 특징 때문에 신앙이 없는 청소년들이 자신보다 무엇인가를 잘하고, 재미있는 삶을 살고 있는데, 자신은 신앙에 갇혀서 유익함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중기 청소년 시기에 신앙에서 벗어나는 현상이 주로 나타난다. 이에 중기 청소년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앙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유익함을 인정할 수 있는 교육과 양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마지막으로 후기 청소년은 비로소 인격적이고 합리적인 신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이다. 후기 청소년은 합리적인 지식과 추론적인 사고를 통해서 신앙을 내면화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조절하고,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후기 청소년들에게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신앙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오윤선, 2008: 216-217).

2. 교육과 설교

(1) 청소년 설교의 목적

청소년 설교의 목적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다.’ 결국 청소년 설교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한다. 들을 없이 응답이 없고, 응답 없이 변화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설교를 듣고 이를 내면화해야 한다. 말씀을 듣고 응답한다는 것은 그 내용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결국 청소년 설교는 청소년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이를 내면화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 시켜 나가는 것을 목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이철승, 2010: 198).

(2) 교육과 설교

교육과 설교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찰스 다드(C. H. Dodd)는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다드는 1935년 케리그마(Kerygma)와 디다케(Didache)를 명확하게 구분하면서 선포와 가르침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다드는 가르침인 디다케는 아직 회심하지 않고 기독교에 관심을 보이는 비신자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소개해주며, 교리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하는 것과 함께 삶을 위한 윤리적 권고로 보았다. 그리고 선포인 케리그마는 비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구원을 공적으로 공표하는 것으로 보았다. 초대 교회의 사도들의 주요 사역은 선포라고 주장하였다(Dodd, 1980: 20-27). 그러나 다드는 교육적 측면을 간과하는 경향을 보였다(이숙경, 2013: 16).

반면에 노르만 하퍼(N. E. Harper)는 다드의 논리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선포와 가르침을 구분하는 곳이 없다는 것이다. 특별히 기독교적 삶이 없는 선포가 있을 수 없으며, 선포 없는 곳에서 가르침만으로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장경진, 2013: 213-214). 결국 선포와 가르침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인데 다드는 억지로 구분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물론 회개와 구원을 이끌어 내는 케리그마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디다케를 구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케리그마는 구원이 시작되는 단회적 사건이며, 디다케는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반복적 사건이다. 그러므로 케리그마와 디다케는 빈도의 차이는 있으나 본질적 차이는 없다는 것이 하퍼의 주장이다(Haper, 1984: 114-115). 다드와 하퍼의 주장을 살펴볼 때 하퍼의 주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 설교에 교육적 기능을 제외하고 선포의 기능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예수님의 설교에도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공포하는 선포적 설교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가르치는 교훈적 설교가 공존하고 있다(김대혁, 2015: 180-182). 이에 앞으로 교회 내에서 교육과 설교를 엄밀히 구분하는 것보다 교육과 설교를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3) 교육 설교의 필요성

교육 설교의 필요성은 여러 학자들의 연구들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다. 먼저 장경진(2013: 216)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한 부활 신앙과 그 고백적 표현인 코이노니아(koinonia), 케리그마, 디다케, 레이투르기아(leiturgia), 디아코니아(diakonia)는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교회가 전체 회중을 가르침으로서 신앙의 구조 자체가 교육의 장이 되었다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초대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 말씀인 “가르쳐 지키게 하라”에 기초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명령을 교육명령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이에 교회 사역에서 목회와 교육을 따로 분리할 수 없으며, 설교와 교육을 분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설교는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고, 교육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숙경(2013: 17-18)은 교육과 설교는 목회에서 분리할 수 없는 관계이기 에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하지만 현재 설교는 교육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별히 그동안의 설교학의 논의 속에서는 설교의 본질 회복과 방법 개발과 같은 설교 자체에 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성도들의 치유나 교육과 관련된 논의가 부족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설교와 교육을 지나치게 구분한 학문의 영향이 매우 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설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의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대혁(2015: 184-185)은 오늘날 교육 설교는 예배의 특성과 성도들의 신앙생활 양상을 고려해 볼 때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교회들은 비신자와 초신자들을 위한 예배와 신자들을 위한 예배를 구분해서 드리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비신자, 초신자, 신자들을 위한 구분 없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초대교회가 케리그마 이후 예배를 드릴 때 디다케에 집중한 것은 초대교회 또한 신자와 비신자, 초신자의 구분 없이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다. 결국 현대교회도 초대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설교에서 디다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 때문이다.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도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특별히 청소년들은 예배 후에 공과공부를 통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들 가운데 많은 수는 예배가 끝나면 도망치듯 교회

를 빠져 나가는 경우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결국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성도들과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설교를 통한 교육은 더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학자들의 주장을 살펴 볼 때 설교가 가지는 교육적 기능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교육 설교를 위한 구조 또는 모형을 제안하는 연구는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 설교의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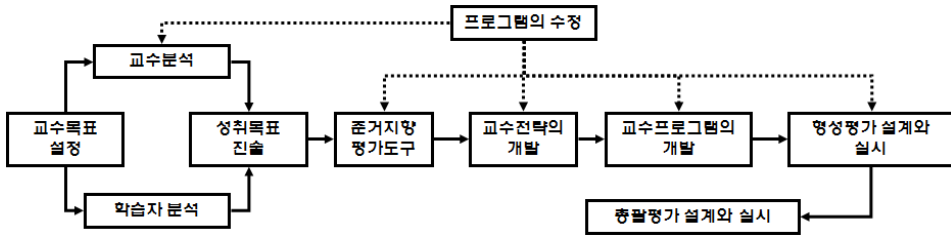
3. 교육 설교 구조 구성을 위한 이론적 탐색

교육설교 구조의 구성을 위한 적절한 교수-학습 모형으로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ISD: Instruction Systematic Design)과 가네(Gagné)의 9가지 수업 사태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중등교육현장에서 수업의 구성 및 교육 프로그램의 구성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교수-학습 이론임이 검증되었기 때문이다.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은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본적인 모형이다. 이와 함께 가네(Gagné)의 9가지 수업 사태는 교육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설계 모형이며, 학습의 과정을 분석하여, 해당 과정을 토대로 수업 상황에서 교육과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요소들로 구성된 설계 모형이다(류지현 외, 2013: 63-64). 특별히 가네의 9가지 수업 사태는 수업 상황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특별히 20분에서 30분 정도 진행되는 원격 수업 자료를 개발할 때도 사용되는 모형이기도 하다(양희인 외, 2015: 123).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과 가네(Gagné)의 9가지 수업 사태를 기반으로 교육 설교의 구조를 제안하고자 한다.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과 가네(Gagné)의 9가지 수업 사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체제적 교수설계(ISD) 모형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은 딕(Dick)과 캐리(Carey)부부에 의해서 제안되었다. 딕과 캐리는 교수과정을 투입-과정-산출 과정으로 보았다. 이와 함께 교수 설계는 학습자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체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체제적인 설계가 의미하는 것은 학습자와 교육내용 뿐만 아니라 제반의 모든 환경과 상황 조건들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백송이, 2014: 8). 예를 들면 교육환경, 지역사회, 학습자의 특성, 조직의 사고방식, 교육내용에 대한 인식과 같은 것들도 교수 설계 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학습자에게 어떤 교육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교수 조건을 설계하는 것이 체제적 교수 설계이다. 디카 캐리가 제안한 교수설계 모형은 [그림1]과 같다(Dick, Carey & Carey, 2003: 1-3).



[그림1]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

디카 캐리가 제안한 교수설계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교수 목표설정은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가 획득하게 될 구체적인 행동을 설정하는 것이다. 학습자 분석은 학습자의 특성이나 지식 정도를 분석하고, 교수 설계를 위한 학습 환경이나 조건들을 분석한다. 교수분석은 교수목표의 유형을 분석하고, 학습 내용의 설정을 위해서 각 교수 목표들의 하위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성취목표 진술은 교수분석을 토대로 학습자들의 성취해야 할 목표들을 구체적인 행동 용어로 기술하는 것이다. 준거지향평가도구 개발은 성취목표의 도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이다. 교수전략의 개발은 최종 수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교수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교수 프로그램의 개발은 실제 수업을 위한 학습 자료와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발하는 과정이다. 다음으로 형성평가의 설계와 실시는 개발된 교육 프로그램의 검증을 위한 시험운영을 하고, 개선 사항들을 도출하여 수정하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총괄평가 설계와 실시는 개발된 프로그램의 최종 시험운영으로서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한 단계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은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교수설계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 설교를 설계하는 기본 모형을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을 사용하고자 한다(Dick, Carey & Carey, 2003: 5-9).

(2) 가네(Gagné)의 9가지 수업 사태

미국의 교육심리학자 가네(Gagné)는 학습의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학습의 다섯 가지 범주를 제안하였다. 학습의 다섯 가지 범주는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다. 학습의 다섯 가지 범주는 언어정보, 지적기능, 인지전략, 태도, 운동 기능이다(김남경, 2015: 226). 이와 같은 학습 결과는 학습의 준비, 획득과 수행, 학습의 전이의 단계를 통해서 얻어진다. 학습의 준비는 학습자가 학습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기대하고, 작동기억에 학습 내용을 재생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준비가 되면, 학습자는 학습 내용에 대해 선택적인 지각을 하고, 학습 내용의 의미를 부호화하고, 부호화에 반응하며, 학습 내용을 강화해서 학습 내용을 저장하는 것으로 학습 내용을 획득하게 된다. 그리고 재생의 단서를 마련하고, 학습 내용을 일반화 하는 것으로 학습 내용을 전이시키는 것으로 학습을 마무리 하게 된다. 이처럼 9단계를 통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가네는 학습과정을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업의 과정을 개발하였다(Gagne, 1998:85-87). 이를 가네의 9가지 수업 사태라고 한다. 가네의 9가지 수업 사태는 <표1>과 같다.

수업 활동	내 용
주의 집중 획득	수업을 시작할 때 학습자들의 주의력을 획득함
수업 목표 제시	학습이 끝났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같은 학습 목표를 제시함
선수학습 회상	학습자가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선수 학습 내용을 회상시킴
자극 자료 제시	학습자가 학습해야 할 내용이나 정보를 제시함
학습 안내 제공	학습자들이 과제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이나 모델을 제공함
수행 행동 유도	학습자들이 학습한 요소들을 실제로 수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피드백의 제공	학습자들이 수행이 얼마나 성공적이었고 정확했는지에 대한 결과를 알려줌
목표수행 평가	다음 단계의 학습이 가능한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함
파지 및 전이	새로운 학습이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되거나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함

<표1> 가네의 9가지 수업 사태

가네의 9가지 수업사태는 효과적인 수업 구성을 위한 수업컨설팅을 위한 기본 구조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업 설계와 수업 구성안을 작성할 때도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는 기본 구조이기도 하다. 특별히 수업 설계 시에 가네의 9가지 수업 사태를 사용하는 이유는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학습이 이루어지는 단계를 분석하고, 그 단계가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업 활동을 구성하였기 때문이다(왕경수, 1999: 301-302). 이에 본 연구는 교육설교 구조를 구성할 때 내용 전달을 위한 기본 구조를 가네의 9가지 수업 사태를 기본 이론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4. 선행 연구에 의해 제시된 설교 구조 탐색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설교의 구조는 <표2>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캡스(Capps)의 설교의 구조는 상담을 위한 설교 구조로서 먼저 청중의 문제를 확인하는 단계로 청중들의 문제를 노출 시키고,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한다.

연구자	설교의 구조					
Capps, 1996	청중의 문제 확인	문제의 탐색	진단적 해석	목회자 개입		
김만풍, 1995	여는 말씀	원리의 제시와 적용	맺는 말씀			
안혜영, 2008	상황	반응과 결과	욕구	은혜	소원	실천 및 변화
백동조, 2011	갈등 유발	갈등 승화	복음으로 갈등 전환	결론	적용	
전형준, 2012	상황 속에서 진입구를 발견하라	마음의 동기를 살펴라	성경말씀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라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새로워진 마음의 변화를 인식하라	변화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계획하라	
윤용현, 2014	귀납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전반부	연역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중, 후반부				

연구자	설교의 구조					
김창훈, 2015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스토리) 를 언급한다.	일반화 또는 동일시가 필요하다.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 해결의 원리를 제시한다.	구체적인 적용을 제시한다.		

〈표2〉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설교의 구조

다음은 문제를 탐색하는 단계로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을 탐색하고, 그 상황을 명료화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는 진단적 해석을 하는 단계로 탐색의 단계에서 얻은 정보를 토대로 문제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개입 단계는 설교의 결론 부분으로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것인가를 제시하는 것이다(Capps, 1996: 46-50).

두 번째로 김만풍(1995: 79-87)의 설교의 구조는 여는 말씀으로 시작한다. 여는 말씀은 주제를 설명하고, 문제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원리의 제시와 적용은 여는 말씀에서 제시된 문제의 해결 원리와 삶의 적용을 성경말씀을 토대로 제시하는 것으로 설교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맺는 말씀은 앞서 제시한 원리들을 종합하여 요약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로 안혜영(2008: 104-106)은 본문의 상황과 회중의 상황을 비교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한다. 다음으로 본문의 반응과 결과를 토대로 회중의 반응과 결과를 제시하고, 본문의 대상을 지배하고 있는 욕구를 발견하고, 회중들을 지배하는 욕구를 발견시킨다. 다음으로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회중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적용하고, 본문의 대상이 하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하는지 발견하여 회중도 동일한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어떻게 반응하며 어떤 삶의 결과가 있어야 하는지 전달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네 번째로 백동조(2011: 275-282)는 이야기식 설교의 구조를 제안한다. 먼저 본문 안에서 나타나 있는 주제를 통해 회중의 갈등을 유발한다. 다음은 갈등 승화의 단계로 본문 안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본문 안에 있는 대상과 회중의 갈등을 더 이끌어 낸다. 다음으로 복음으로 이 갈등들을 해결하며, 복음이 갈등의 해결 방법임을 제시하고, 복음으로 갈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한다. 다음으로 결론을 통해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적용을 통해 삶에서 실천할 내용을 전달한다.

다섯 번째로 전형준(2012: 145-149)은 본문의 대상과 회중이 처해 있는 상황이나 압박으로 설교를 시작한다. 다음으로 본문에 나오는 대상과 회중들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고, 성경 본문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 상황을 해결하고, 마음을 변화시켜야 함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마음의 변화되었음을 인식하도록 권면하며, 변화된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실천할 것인지를 결단하도록 하면서 설교가 마무리 된다.

여섯 번째로 윤용현(2014: 305-310)은 설교의 구조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 먼저 전반부는 귀납적인 방식으로 설교를 구성하고, 중반부와 후반부는 말씀을 통해 연역적으로 설교를 구성하는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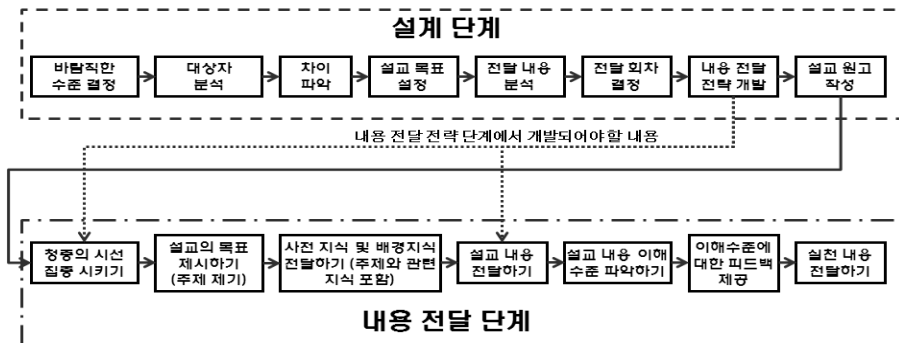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김창훈(2015: 167-169)은 선택한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로 설교를 시작한다. 다음으로 해당 설교의 주제가 특정 인물과 대상의 이야기가 아닌 회중 전체에게 적용되는 것임을 인지하도록 동일시를 시킨다. 이후에 설교의 주제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원인을 분석해서 전달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며 설교를 마무리 한다.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의 설교 구조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의 구조들이 가지는 공통점을 설교 내용의 전달을 위한 구조와 방법이라는 것이다. 설교 주제의 선정과 내용의 구분, 시리즈 설교가 필요할 때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조가 제시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서 단편적인 설교뿐만 아니라 연계성을 지닌 시리즈 설교도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설교의 구조는 내용 전달 단계에서 설교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것도 제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설교 준비의 단계의 구조가 제시되고, 내용 전달 단계에서 설교자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한 설교의 구조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II. 교육설교의 구조

1. 교육설교 구조

교육설교의 구조는 모두 두 부분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설교의 설계 단계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때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체계적인 설계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에 교육 설교는 설계 단계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로 설계 단계를 구성하였으며, 설계 단계는 체제적 교수 설계 모형을 토대로 구성하였다.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으로 설계 단계를 구성한 이유는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이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하는데 최적화된 교수설계 모형이며, 최근에 개발된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들은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두 번째는 내용 전달의 단계이다. 교수 설계 모형은 내용 전달 체계나 방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설교 내용을 교육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구조를 제안하기 위해 가네의 9가지 수업 사태를 사용하였다.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도 밝혔듯이 가네의 9가지 수업 사태는 학습과정을 토대로 구성된 수업 모형으로서 효과적으로 교육 내용을 전달하는 절차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네의 9가지 수업사태를 토대로 내용 전달 단계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수업과 설교는 내용을 전달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는 동일하지만 매체의 사용, 활동의 형태, 주기, 상호작용의 방법, 환경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네의 수업 사태를 기본으로 하되 설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달하는 순서를 중심으로 구조를 구성하였다.



[그림2] 교육설교 기본 구조

2. 설계 단계

교육설교의 설계 단계는 모두 8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진행된다. 각 요소를 구성한 사유와 활동 내용은 <표3>과 같다.

구성요소	구성 사유	활동 내용
바람직한 수준 결정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에서 교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학습자들이 도달해야 하는 바람직한 수준을 설정한다. 이에 교육 설교 설계 단계에서 설교의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수준을 결정하는 요소를 구성하였다.	바람직한 수준 결정은 설교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청소년들이 보여야 할 바람직한 행동, 태도, 가치관, 지식 등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친구의 실수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친구를 이해하고 용서를 한다.
대상자 분석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에서 학습자 분석을 통해 학습 환경과 상황을 분석하고, 학습자의 특성을 분석하여 교수 전략을 구성할 때의 함의점을 도출한다. 이에 교육 설교 분석에서는 현재 학습 대상자의 수준과 특성을 분석하고, 설교를 위한 환경과 주변 여건을 분석하는 요소를 구성하였다.	대상자 분석은 차이 파악과 내용 전달 전략 개발을 위해 수행하는 것이다. 대상자 분석에서는 설교 청중의 특성, 설교가 전달되는 환경, 상황 등에 대해서 분석해야 하며, 특별히 결정되어진 바람직한 수준에 대해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보이고 있는지 가능한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 이는 설교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므로 교사 및 학생회를 통해서 함께 수행하는 것이 원활할 것이다.
차이 파악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에서 교수 목표 설정을 위해 바람직한 상황과 학습자의 수준의 차이를 분석해서 교수 목표를 설정한다. 이에 교육설교 설계 단계에서도 바람직한 수준과 대상자 분석의 결과를 통해 도출된 학습자의 수준을 분석해서 차이를 파악하는 요소를 구성하였다.	차이 파악은 설교 목표 설정을 위해서 대상자들에게 부족한 것을 파악하는 활동이다. 바람직한 수준과 대상자들의 실제 수준의 차이 파악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육해야 하는 정도 및 내용을 분석하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예를 들면 바람직한 수준이 ‘친구의 실수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지 않고 친구를 이해하고 용서를 한다.’이고, 실제 대상자들의 수준은 ‘친구의 실수를 이해하지 않고 분노를 표현한다.’ 이면 차이는 친구를 이해하지 않고, 분노를 부적절하게 표현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 교육이 필요한 차이로 나타난 것이다. 즉 차이 파악은 교육이 필요한 내용과 정도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구성요소	구성 사유	활동 내용
설교 목표 설정	<p>체제적 교수설계에서는 학습자들이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할 수준을 교수목표 설정을 통해 구성한다. 이에 교육설교 설계 단계에서 차이 파악에 의한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들이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할 수준을 설교 목표로 설정한다.</p>	<p>설교 목표 설정은 차이 파악을 통해서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설교의 목표를 설정하는 단계이다. 설교의 목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친구가 실수하면 이해하기 위한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실수한 친구에게 적합한 용어와 적절한 방법으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분한 마음을 품지 않고 친구를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가 설교의 목표가 될 수 있다.</p>
전달 내용 분석	<p>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에서는 교수분석을 통해서 학습자들에게 전달할 내용을 분석한다. 이에 교육설교 설계 단계에 교수분석과 동일한 전달 내용 분석 요소를 구성하였다.</p>	<p>전달 내용 분석은 설교 목표 설정을 통해서 결정된 구체적인 행동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위 요소들을 분석해서 설교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친구가 실수하면 이해하기 위한 태도를 보인다.’ 라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육되어야 할 내용은 ‘첫째, 상대방의 행동에 따라 즉각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이다. 친구의 행동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감정을 표현했을 때 친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태도 갖기’ 이다. 친구의 실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친구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역사사지의 관점을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달 내용 분석에서는 설교 목표에 따라서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어야 할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는 설교 목표에 따라 많은 수의 내용으로 구분될 수도 있고, 하나의 내용으로 분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p>
전달 회차 결정	<p>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은 성취목표 진술을 통해서 수업의 회차를 결정한다. 이에 교육설교 설계 단계는 전달 회차 결정 요소를 구성하였다.</p>	<p>전달 내용 분석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 전달할 내용이 분석되었다면 몇 회에 걸쳐서 전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 두, 세 가지 내용을 한 번에 전달해도 되지만, 내용의 분량에 따라서 두 번 또는 세 번에 걸쳐서 전달할 수도 있을 것이다.</p>
내용 전달 전략 개발	<p>체제적 교수설계 모형은 교수전략을 개발하는 단계를 통해서 내용 전달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과 수업 전략을 개발한다.</p>	<p>내용 전달 전략 개발에서는 전달할 내용과 회차가 결정되면 각 내용에 따라 효과적인 전달 전략을 개발하는 과정을 가진다. 특별히 내용 전달 전략 개발에서는 설교 내용을 고려해서 초기</p>

구성요소	구성 사유	활동 내용
내용 전달 전략 개발	이에 교육설교 설계 단계에 내용 전달 전략 개발 요소를 구성하였다.	청중들의 시선을 집중 시키는 전략과 설교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설교 원고 작성	체계적 교수설계 모형은 교수 전략이 개발되면 실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연하고 수정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교육설교 설계 시 실제 설교를 작성하여 시연 후 설교 내용을 수정하는 것은 매우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설교 설계 단계에서는 시연과 수정 단계를 제외하고, 실제 설교를 작성하는 요소인 설교 원고 작성 요소로 구성하였다.	교육설교는 설계 단계를 토대로 분석되고 개발된 내용을 토대로 원고를 작성하게 된다. 설교 원고 작성 단계에서 각 내용에 적합한 성경 본문을 결정한다.

〈표3〉 설계 단계 구성요소 및 내용

3. 내용 전달 단계

교육설교의 내용 전달 단계는 모두 7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진행된다. 각 요소를 구성한 사유와 활동 내용은 <표4>과 같다.

구성요소	구성 사유	활동 내용
청중의 시선 집중시키기	9가지 수업 사태 가운데 주의 집중 획득의 단계와 동일한 요소로 구성하였다. 다만 설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청중의 시선 집중 시키기라는 요소로 명칭을 조정하였다.	내용 전달 단계에서 첫 번째는 청중들의 시선을 집중 시키는 것이다. 청중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지각적 주위 환기를 사용해도 되고, 탐구적 주의 환기를 사용해도 된다. 예를 들면 친구의 실수에 대한 지각적 주의 환기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친구에게 유색 음료를 쏟는 동영상이나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탐구적 주의 환기는 블링크 된 문장을 통해서 이끌어 낼 수 있다. ‘친구가 나에게 ()를 했을 때 무척 화가 난다.’ 와 같은 문장을 제시하고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생각해 보고 발표해 보도록 한다면 매우 좋은 탐구적 주의 환기의 예가 될 것이다.

구성요소	구성 사유	활동 내용
설교 목표 제시하기 (주제 제기)	9가지 수업 사태 가운데 수업 목표 제시 단계와 동일한 요소로 구성하였다. 다만 설교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설교 목표 제시하기라는 명칭으로 조정하였다.	효과적인 내용 전달을 위해서 청중들의 시선을 집중 시켰을 때 설교의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내용이 전달 될 것인가를 함축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실수했을 때 친구가 거친 말을 하거나 공격성을 보인다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그렇게 좋은 기분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상대방이 나에게 실수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같은 내용으로 설교의 목표를 제시하면 된다.
사전 지식 및 배경 지식 전달하기 (주제와 관련된 지식 포함)	9가지 수업 사태 가운데 선수학습 회상의 단계와 동일한 요소이다. 선수학습 회상이란 앞서서 학습한 내용을 떠올리도록 함으로서 이후의 학습을 원활하고 지원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내용 전달의 단계에서 사전 지식 및 배경 지식 전달하기로 변경하였다. 그 이유는 설교의 경우 짧은 기간 안에 주제들이 변경되기 때문에 일반 수업환경처럼 선수학습 회상이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교육 설교에서는 앞의 설교와 이어질 경우 사전 지식을 전달하고, 새로운 주제가 시작될 경우 배경 지식을 전달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다.	설교의 목표가 제시되었다면 설교 본문과 관련된 배경 지식과 관련된 사전 지식들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지는 것에 대한 설교 본문으로 아들람 굴에서의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면 당시 다윗의 상황과 역사적 배경, 사울왕의 행적과 행동에 대한 배경 설명을 충분히 전달한다. 사전 지식 및 배경 지식은 비교적 상세하고 객관적인 지식들을 전달할 때 설교 내용 전달 시에 청중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설교 내용 전달하기	9가지 수업 사태 가운데 학습 안내 제공과 동일한 요소이다. 학습 안내 제공은 학습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설교에서 설교 내용 전달하기로 명칭을 조정하였다.	설교 내용 전달하기는 청중들에게 설교의 핵심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이다. 특별히 내용 전달 전략에서 개발된 방법을 활용하여 설교의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내용 전달 전략을 토대로 시청각 자료 제시 중심의 전략, 연극을 활용한 전략, 토론식, 게임식, 비유와 은유 중심, 실험을 활용한 메타포 방식의 전달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설교에서는 언어 중심의 내용 전달은 청소년들의 주의 집중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

구성요소	구성 사유	활동 내용
설교 내용 이해 수준 파악하기	9가지 수업 사태 가운데 수행 행동 유도과 동일한 요소이다. 수행 행동 유도는 학습자들의 내용 이해 수준을 파악하여 피드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활동이다. 이에 교육설교에서도 설교 내용의 이해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요소를 구성하였다.	설교 내용을 전달한 이후 청중들이 설교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윗이 아들랍 굴에서 보인 행동은 어떤 이유에 의한 건가요?”처럼 질문으로 확인을 해도 되고, 아니면 간단한 퀴즈나 때로는 다양한 게임으로 확인을 해도 된다. 분명한 것은 청중들이 설교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별히 오개념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 수준에 대한 피드백 제공	9가지 수업 사태의 피드백의 제공과 동일한 요소이다. 피드백의 제공은 학생들의 수행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교육설교에서도 설교 내용 이해 수준에 대한 설교자의 피드백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기에 이해 수준에 대한 피드백 제공 요소를 구성하였다.	청중들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였다면 피드백을 제공해야 한다. 오개념을 형성하였다면 바로 잡아주어야 하며, 개념 형성이 부족하다면 추가적인 설명과 내용 전달을 통해서 보충하여야 한다. 특별히 피드백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드백을 제공하는 전략은 구두로 설명하는 것도 괜찮지만 플래시 카드, 동영상, 체험활동들을 통해서 피드백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처럼 이해 수준 확인 후에 피드백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천 내용 전달하기	교육 설교에서는 목표수행 평가를 제외하고, 파지 및 전이와 동일한 요소인 실천 내용 전달하기를 구성하였다. 그 이유는 목표수행 평가는 중간고사 또는 기말 고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평가이다. 설교 상황에서 이와 같은 대규모 평가가 제한되기 때문에 목표수행 평가 활동은 제외하고 학습 내용을 일반화할 수 있는 실천 내용 전달하기 요소를 구성하였다.	설교 내용 전달의 마지막으로 청중들에게 실천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항상 친구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라고 전달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다. 더 구체적으로 ‘친구가 나에게 화를 내면 먼저 내가 친구에게 실수한 것은 없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 주는 혹시 나에게 화를 내는 친구가 있다면 맞서서 화내지 말고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생각해 보고 사과해야 하면 사과하고, 오해를 풀어야 하면 오해를 해결하는 행동을 하기 바랍니다.’ 또는 ‘친구가 나에게 말로 실수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실수할 때는 먼저 화부터 내면 안 돼요. 일단은 친구가 나에게 이런 말과 행동을 왜 했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고, 친구가 잘못을 했다면 나의 감정과 마음을 공격적이지 않은 말로 정중하게 표현을 하세요. 그리고 감정의 앙금을 남기지 않게 화해를 하세요.’처럼 구체적으로 실천할 행동을 제시합니다.

〈표4〉 내용 전달 단계 구성요소 및 내용

I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설교의 구조를 구성하여 제안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교육과 설교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설교와 교육은 분리될 수 없으며, 교육과 설교는 현대 목회에서 동질적인 기능과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래서 교육과 설교를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설교에 교육적 기능을 포함한 교육설교가 이루어져야 함을 논하였다. 특별히 교회의 예배의 특징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유형에 의해서 설교에 의한 교육은 더욱 절실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대 교회는 교육설교가 필요하며, 특별히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설교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체제적 교수설계 모형과 가네의 9가지 수업 사태를 기본으로 교육설교의 구조를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이는 교육설교를 위한 기본 구조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교육설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김대혁, 2015: 194). 그러나 청소년들의 집중도를 고려할 때 적절한 시간을 선정하여 시리즈 설교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ISD를 활용하여 설교 목표를 설정할 때 적절한 시간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설교자가 청중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설교 주제와 내용을 중요도를 함께 고려해서 설교의 시간을 결정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시리즈 설교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먼저 교육학이론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설교학과 관련된 충분한 논의를 다루지 못한 점이다.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교육과 설교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논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구성된 교육설교의 구조의 효과성 검증이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향후 연구를 통해서 교육설교 구조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교육설교의 구조는 교육설교에 대한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더 발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설교 구조의 개발과 개선을 위해 방향성을 던지는 것이 본 연구의 의의라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교육설교의 구조에 대해 더욱 다양하고 의미 있는 이론들을 적용한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할 것을 제안하며 본 연구를 마무리 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고용수 (2015). “공감과 소통의 공동체 형성과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42. 13-46.
- 김남경 (2015). “가네의 목표별 수업이론에 기초한 초등학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분석.” 『한국실과교육학회지』, 28(4). 223-239.
- 김대혁 (2015). “균형 잡힌 교회교육을 위한 장기적 설교계획에 관한 연구.” 『성경과 신학』, 75. 177-211.
- 김도일 (2013). “교육선교에 관한 연구 -제주교육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기독교교육논총』, 34. 1-30.
- 김만풍 (1995). 『상담설교』. 서울: 크리스찬서적.
- 김창훈 (2015). “강단의 비타민으로서 ‘상담적 설교’: 형식과 구조에 대한 연구.” 『개혁논총』, 33. 145-175.
- 류지현·김민정·김소영·김혜원·손찬희·이영민·임걸 (2013).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서울: 학지사.
- 박종석 (2002).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독교교육체제로서의 설교: 청소년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정보』, 5. 261-301.
- 백동조 (2011). “적용이 있는 효과적인 이야기식 설교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목회신학전문대학원.
- 백송이 (2014). “Rapid Prototyping ISD 모형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설계, 개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안혜영 (2008). “성경적 인지상담 모델에 기초한 상담설교 모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 양희인·이은철·김영천·금지현·김성미·남선우·이은주·유경희·김상철·최문선 (2015). “학습자특성을 고려한 방송통신고등학교 온라인 콘텐츠 설계 모형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오성주 (2013). “청소년 왕따와 폭력 그리고 자살문제.” 『기독교교육논총』, 34. 259-283.
- 오성주 (2014). “한국 청소년 교육을 위한 포스트 파울러 프레이리의 의식화 교육론에 관한 소고.” 『기독교교육논총』, 37. 115-144.
- 오윤선 (2008). “청소년 발달특성 문제에 관한 기독교 영성과 상담심리의 통합적 접근.” 『복음과 상담』, 11. 209-236.
- 옥장흠 (2013). “통전적 영성교육을 위한 교수방법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36. 343-367.
- 왕경수 (1999). “Gagne와 Marrill의 교수이론 비교.” 『교육과정연구』. 17(2). 297-311.
- 윤용현 (2014). “성경적인 설교를 위한 구조 연구: 혼합적 구조.” 박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목회신학 전문대학원.
- 윤화석 (2015). “소통과 공감에 기초한 교회교육적 접근: 교회교육에서의 비블리오 드라마.” 『기독교교육논총』. 42. 73-100.
- 이선영 (2014). “효과적인 성경교수를 위한 창조적 교수-학습 모형 설계 -로렌스 리차즈의 HBLT 접근법을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38. 255-280.
- 이숙경 (2013). “현대 설교의 과제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고찰.” 『성경과 신학』. 67. 1-29.
- 이은철·김민정 (2010). “청소년을 위한 영성 척도의 개발.” 『열린교육연구』. 18(3). 243-263.
- 이철승 (2010).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본 청소년 설교 실제.” 『복음과 실천신학』. 22. 189-215.
- 장경진 (2013). “교육목회에 있어서 설교자의 역할: 청중이해와 설교적용.” 『기독교 교육정보』. 39. 213-239.
- 전형준 (2012). “성경적 상담과 설교의 통합 방안 : 성경적 상담설교의 구조를 중심으로.” 『성경과 신학』. 61. 123-156.
- 조은하 (2013). “기독교 청소년 교육에 대한 창조적 성찰.” 『기독교교육논총』. 34. 147-168.
- Capps, D. (1980). *Pastoral Counseling and Preaching*. 전요섭 역 (1996). 『목회상담과 설교』. 서울: 솔로몬.
- Dick, W., Carey, L. & Carey, J. O. (2000). *The systematic design of instruction, 5th ed.* 최수영·백영균·설양환 공역 (2003). 『체제적 교수 설계』. 서울: 아카데미 프레스.
- Dodd, C. H. (1980). *The Apostolic Preaching and Its Developments. Grand Rapids, Michigan: Baker Book House.*
- Gagne, R. M.(1985). *The Conditions of learning and theory of instruction*. 진성연, 김수동 공역 (1998). 『교수-학습 이론』. 서울: 학지사.
- Harper, N. E. (1984). *Making Disciples*. 이승구 역 (1993). 『현대 기독교교육』. 서울: 엠마오.

Abstract

Suggestion of education sermon structures for young people

Eun-Chul Lee (KEDI)

Seong-Ah Lee (Korea Bible University)

Sun-Woo Nam (Yulim Presbyterian Church)

This study aimed to suggest a new sermon structure for young people education. The proposed structure is based on both nine events of Gagné and selected ISD(Instructional System Design) models, and the process of the sermon is divided into two phases. The first step is the sermon design stage: 1) desired level determination, 2) audience analysis, 3) gap analysis, 4) setting goal of the sermon, 5) learning contents configuration, 6) session decisions, 7) development of content delivery strategies, 8) writing a sermon manuscript. The content delivery stage as the second step is composed of: 1) drawing attention of the audience, 2) presenting sermon objectives, 3) delivering both prior and background knowledge, 4) delivering sermon contents, 5) assessing the level of understanding, 6) providing feedback, 7) delivering the contents for practice. The contribution of study is to provide a education sermon structures for youth with a series of sermon structures.

Key Words: young people sermon, education sermon, sermon structures, sermon content delivery, sermon content strategies